

李鈺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 一考

김선아(전주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 |
| 2. 소품문 창작의 배경 | 1) 열거와 반복 2) 연쇄와 분절 |
| 1) 古文論에 대한 비판적 입장 | 3) 대화체의 활용과 방언의 수용 |
| 2) 明·淸 문집의 闕讀 | 4.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의 의미 |

1. 머리말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 1760~1815년)은 소품문을 썼다는 이유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일생 동안 소외되어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문장의 전범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대한 고민인 古文論이 여전히 계속되었고 明清 小品文의 유입으로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서도 소품문 창작이 성행했다. 소품문 창작이 성행하자 주자학적 사유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正祖는 소품문 창작을 통제했다. 정조의 문체반정으로 인해 應製文에 소품체를 사용한 이옥의 진로가 막히고 체제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것¹⁾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1) 이옥은 응제문에 순전히 소설문체를 사용했다 하여 유배되는데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과장에 나가지 않고 바닷가 남양에 칩거하면서 오로지 문학

그의 삶의 여정은 지금까지 이옥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동안 이옥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傳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이옥의 한문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가 소품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말 이후부터 소품문장가로서의 이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이옥의 생애와 이옥 가문의 당색이 小北이었음이 밝혀졌고²⁾ 이옥 傳 작품의 연구를 통해 이옥이 근대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를 지닌 문인이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³⁾ 이옥의 시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⁴⁾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옥의 소품문이 지닌 특성에 대한 연구⁵⁾와 이옥의 소품문 창작과 명칭 소품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창작에 매달리며 여생을 마쳤다.(『역주 이옥전집』,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소명출판, 2001.의 내용을 참고함)

- 2) 김영진, 「이옥의 가계와 명칭 소품 독서」, 『조선 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317~342면.
- 3) 권순궁, 「李鈺 傳의 시정세대 묘사와 諷刺」, 『한문교육연구』, No.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271-291면.
박성훈, 「이옥(李鈺)의 「전」에 나타난 풍자연구」, 『漢文學論集』, Vol.2, 근역한문학회, 1984, 181-205면.
임정현, 「李鈺 傳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용희, 「李鈺의 「傳」과 「沈生傳」考」, 『성심어문논집』, Vol.11, 성심어문학회, 1988, 65-99면.
- 4) 김균태, 「이옥의 한시론고」, 『先淸語文』, Vol.9 No.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78, 37-50면.
정훈, 「이옥 부(賦)의 기법적 특성과 주제구현양상」, 『韓國思想과 文化』, Vol.2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65-86면.
- 5) 김영진, 「이옥(李鈺) 문학과 명칭 소품 - 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 『古典文學研究』, Vol.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355-387면.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 6) 손병국, 「이옥이 注目한 晚淸淸初文人들」, 『한국어문학연구』, Vol.53, 한국어

측면에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옥의 소품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옥의 소품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옥의 소품문 창작이 그의 소외되고 무료했던 여생을 달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전기적 비평의 측면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의 창작,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작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거나, 세계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드러내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작가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수용되고, 작가의 문학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개별 작품 자체가 가지는 서술적, 수사적 특징과 그것이 나타내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의 소품문이 지니는 특징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옥의 소품문이 지닌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옥 소품문을 그의 생애와 연관지어 분석했던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옥의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소품문 창작의 배경

1) 古文論에 대한 비판적 입장

조선 중기에 이르면 성리학으로 이론을 갖춘 문장가들이 등장하여 고문

문학연구학회, 2009, 259-294면.

韓梅, 「李鈺의 金聖嘆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Vol.11, 中韓人文科學硏究會, 2003, 244-264면.

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고문론은 조선 후기 고문가들에게 계승되어 한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전범 설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던 고문론에 대한 반발로 소품체 작품이 등장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슷한 시기에 소품체 작품을 창작한 연암 박지원에 비해 이옥에 대한 평가는 그의 문학 작품이 가진 다양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현대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옥이 소품을 창작한 배경에는 고문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이 뒷받침되어 있다. 다음 글은 「祭文神文」이라는 작품이다. 이 글을 통해 이옥이 古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지금의 세상을 보건대, 박람자(博覽者)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있어 쫓아가 질문해 보면 향아리 속에서 별을 말하는 듯하고, 사(詞)·부(賦)·고문(古文)을 잘한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있어 찾아서 들어 보면 벽을 뚫어 호로(葫蘆)를 그린 듯하고 시문에 능하여 과장에 이름을 날리는 자가 있어 구하여 완상해 보면 모두 허수아비를 장식하여 저자에서 춤추게 하는 듯하다.⁷⁾

이 글은 다른 문인들이 文神의 가호를 받는 것처럼 이옥 자신도 문신의 가호를 받고 싶어서 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글이다. 이 글에서 이옥은 ‘향아리 속에서 별을 말하는 것 같고, 벽을 뚫어 호로(葫蘆)를 그리고, 허수아비를 장식하여 저자에서 춤추게 하는 듯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전과 일반 서책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나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문에 대한 이옥의 생각은 “詞·賦·古文을 잘 한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있어 찾아서 들어보면 벽을 뚫어 호로 [호리병막] 를 그린 듯했다”라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호리병막을 직접 그리지 않고 벽에 난 구멍 사이로 그리면 호리병이 제대로 그려질 리가 없다. 벽을 뚫어 호리병막을 그

7) 『역주 이옥전집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태학사, 2001, 184-185면.

린다는 것은 고문을 빌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潭庭 金鑣⁸⁾는 유일하게 그 당시 이옥의 문장을 인정해주고 이옥의 작품을 자신의 『潭庭叢書』에 수록하여 후세에 전해 준 이옥의 친구이다. 이옥이 죽은 후 이옥이 생전에 남긴 여러 유고들을 모아서 『담정총서』에 수록하고 쓴 그의 後序들을 통해 이옥이 평소 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기상(其相)은 사람됨이 개결스럽고 의기가 많아 옛 절협(절조를 중히 여기는 俠士)의 풍도가 있었다. 그 문장은 섬세하면서 정사가 샘솟듯 하고 그 시는 경쾌하고 청신하여 격조가 초각하다. 기상이 말하기를 “나는 요즘 세상의 사람이다. 내 스스로 나의 시, 나의 문장을 짓는 데 先秦兩漢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魏晉三唐에 무어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題墨吐香草本卷後』⁹⁾

조선 시대 고문론은 先秦兩漢의 산문을 산문창작의 전범으로 삼는 진한 고문파와 당·송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는 당송 고문파의 대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진한고문파와 당송 고문파는 조선시대 고문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그룹에서 전범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선진양한과 당송의 고문이었다. 이 글을 통해 평소 이옥이 자신은 요즘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장, 자신의 시를 지어야지, 선진양한이나 위진삼당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옥은 고문에서 전범을 찾기보다는 요즘 세상, 요즘 사람에게 맞는 문장이나 형식으로 창작하는 것을 선호했던 인물이었다.

다음의 글들을 통해서도 이옥의 고문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다.

8) 위의 책, 353-354면.

세상 사람들이 ‘이기상’은 고문에 능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는 이기상 스스로가 한 말이기도 하다. 기상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문을 배우면서 허위에 빠지는 것이 금문을 배워 오히려 유용함만 같지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中略』 요컨대, 이것으로 세상에서 스스로 고문을 잘한다고 여기는 자에게 자기의 글을 이것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題文無子文鈔卷後』¹⁰⁾

나의 친구 이기상이 문사를 짓는 것을 봄에 매양 붓을 잡고는 즉시 써 내려가 빠르기가 바람과 번개 같아서 손에서는 팔뚝이 멈춤이 없으며 마음 속에서는 막히는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읽는 자 중에는 혹 그가 때때로 방언과 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여 문장의 한 흠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개는 전혀 생삼하거나 건강부회한 흔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뛰어난 재주라 할 만하다. 『題花石子文鈔卷後』¹¹⁾

첫 번째 글에서 이옥이 평소에 자신이 고문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옥은 결코 고문에 능하지 못한 것을 고쳐야 할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문을 배우면서 허위에 빠지는 병통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는 이옥이 글을 쓸 때 고문에 힘쓰지 않았고 走筆로 썼다는 점과 방언, 속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이나 속어를 사용한 것은 고문론의 입장에서 보면 배척해야 되는 것이었다. 방언이나 속어를 써서 다른 이들로부터 비판을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옥은 고문론의 정제된 형식을 답습하여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려 했다. 이와 같은 성향과 고문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의 입장은 소품문 창작의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위의 책, 354-355면.

11) 위의 책, 356면.

2) 명칭 문집의 閱讀

정조는 당시의 문학의 폐단이 明清의 소품 문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명칭소품문의 대표적인 인물로 원굉도를 들었다. 정조는 명칭 소품의 문집이 사고와 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이단적 사유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 명칭의 문집들을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래의 인용문은 蔡濟恭이 올린 상소문에 대한 批答의 일부분으로 정조가 명칭의 문집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서양학을 금하려면 먼저 패관잡기부터 금해야 하고, 패관잡기를 금하려면 먼저 명말초조 문집부터 금해야 한다.¹²⁾

시대적 분위기와 제도적 통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정조 당시의 문인들은 명칭의 문집들을 읽은 사실을 자신의 글 속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옥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자신이 읽은 명칭의 문집 및 소설, 소품서의 서명을 그의 글 속에 많이 언급하고 있다¹³⁾.

정조는 曠觀奇詭하기 때문에 治世의 문장이 될 수 없는 명칭의 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袁中郎集』을 들었는데 재미있게도 이옥은 원굉도의 시집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하고 있다.¹⁴⁾

12) 『정조실록』 15년 10월 24일. (「강명관의 문체와 국가장차-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싼 사건들」,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58면.에서 재인용)

13) 김영진, 「이옥의 가계와 명칭소품 독서」,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김영진에 따르면 이옥이 열독한 명칭의 문집과 글은 다음과 같다.¹⁾

『剪燈新話』, 『板橋雜記』, 『情史類略』, 『牧丹亭還魂記』(『三婦評牧丹亭雜記』), 『西廂記』, 『水滸傳』, 『金瓶梅』, 『肉蒲團』, 『女仙外史』, 『(東軒)述異記』, 『詩餘醉』, 『詩餘圖譜』, 『花間集』, 『草堂詩餘』, 『事文類聚』, 文徵明, 鐘惺, 陳繼儒, 袁宏道, 尤侗, 利瑪竇, 羅聘, 錢謙益의 詩文 등.

14) 「戲題袁中郎詩集後」, 『역주 이옥전집』, 실시학사 고전문학 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 208-210면.

내가 석공을 보건대 그는 한 사람의 평범한 문인에 불과하다. -중략- 석공으로 하여금 지금에 처하게 했다면 남산 아래 두어 칸 초가집에 한 이랑 시든 꽃을 심고, 날마다 龍子猶의 무리들과 더불어 제 멧에 겨워 스스로 읊조리는 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찌 문단에 올라 詞盟을 주도하여 깃발을 날리고 북을 울려 천하가 휩쓸리듯 그를 따르게 할 수 있겠는가? 석공이 살던 시기에는 천하의 시도(詩道)가 지금에 미치지 못하여 석공으로 하여금 도리어 宗匠이 되게 했던 것인가? 석공의 말이 인정에 꺾근하여 白雪樓에서 공연히 고함지르기를 일삼는 것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가 그러함을 알고 그를 따랐던 것인가? 석공으로서는 나름대로 인물이라고 할 만하다. 아, 이도 한 때요, 저도 한 때인데, 그때는 그렇게 되기 쉬웠으리라.

이 글에서 이옥은 우선 원굉도의 시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굉도의 시를 비판하는 이유는 ‘古를 본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자잘하고 연약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얼핏 정조가 명청의 문집을 비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옥이 비판하고 있는 원굉도 시의 이러한 특성은 사실 이옥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았던 점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古文에 대한 이옥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석공의 말이 인정에 꺾근하여 白雪樓에서 공연히 고함지르기를 일삼는 것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가 그의 그러함을 알고 그를 따랐던 것인가?’라는 문장에서 백설루는 명나라 고문론자 이반룡의 室名이다. 이반룡은 秦漢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후칠자의 대표적 인물이다. “백설루에서 공연히 고함지르기를 일삼는다”는 말에는 古文論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옥은 “이도 한 때요, 저도 한 때인데, 그때는 그렇게 되기 쉬웠으리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굉도가 살았던 때의 문학적 성취가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원굉도가 실력이 없음에도 과대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와 비슷한 성향으로 글쓰기를 했던 원굉도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른 것에 대한 한탄 섞인 반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고문에 대한 이옥의 비판적 입장과 명청 문집에

대한 독서가 이옥이 소품문을 창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

이옥은 소품체를 사용한 다른 문인들에 비해 훨씬 가혹한 제재를 받아 군에 편적되고 유배되는 일을 겪었지만 소품체 글쓰기를 끝내 버리지 않았으며 그 작품의 대부분이 소품문이라고 할 정도로 문체반정 이후에도 소품체 글쓰기에 몰두했다.

조선 후기 소품문은 경화세족들 사이에서 독서의 대상이나 창작 형식으로 유행했다. 정조의 문체 반정으로 소품문이 문인들 사이에서 비록 배제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창작이나 독서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품문은 고문의 격식에서 벗어나 문체의 혁신을 이루었는데 소품문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길이가 비교적 짧고 구어와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으며 의문·감탄 및 반복과 열거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⁵⁾. 그리고 그 내용 상에서는 개인의 삶의 모습과 개성을 드러내는 데 치중했으며 일상 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말의 재미를 추구하고 개인적·일상적 정감의 표출이 많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⁶⁾.

이옥의 소품문 중에도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해 개인적 삶을 그려내는데 치중한 작품들과 반복과 열거, 묘사의 서술 방식을 사용한 작품들이 자주 나타난다. 열거, 반복, 연쇄의 서술 방식과 섬세한 묘사, 방언의 활용 같은

15)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28-29면.

이성혜, 「소품문의 문체적 특징」,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103-109면.

16) 안대회, 위의 글, 33-34면.

이성혜, 위의 글, 109-118면.

서술 방식은 다른 작가들의 소품문에 비해 이옥의 소품문에서 월등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열거와 반복

이옥의 소품문 중에는 열거와 반복으로 서술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옥의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거와 반복이 계속 되면 내용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작품의 구성을 평면적이고 수평적으로 만드는 한계¹⁷⁾가 있기도 하지만 열거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풍경이나 대상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언어의 리듬감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寺觀」이란 작품의 일부이다.

나한전을 보니 나한은 오백으로 헤아리는데, 눈은 물고기 같은 것, 속눈썹이 드리워진 것, 봉새처럼 둘러보는 것, 자는 것, 불거진 것, 눈동자가 튀어나온 것, 부릅뜬 것, 흘려보는 것, 걸논질하며 웃는 것, 닭처럼 성내며 보는 것, 세 모난 것이 있고, 눈썹은 칼을 세운 듯 꺾끗한 것, 나방의 더듬이 같은 것, 굵은 것, 긴 것, 몽당비 같은 것이 있고, 코는 사자처럼 쳐들린 것, 양처럼 생긴 것, 매부리처럼 굵은 것, 주부코인 것, 맛맛한 것, 반대코인 것, 대롱을 잘라 놓은 듯한 것이 있고, 입은 입술이 말려 올라간 것, 앵두 끝처럼 생긴 것, 말 주둥이 같은 것, 까마귀 부리 같은 것, 호랑이 입 같은 것, 비뿔어진 것, 물고기처럼 뼈끔대는 것이 있고 얼굴은 누런 것, 약간 파란 것, 붉은 것, 분처럼 흰 것, 마비된 듯한 것, 어루러기가 돋은 것, 흑이 난 것이 있으며, 물고기 눈에 사자의 코를 한 것, 양 코에 눈썹이 드리운 것, 사자 코에 부릅뜬 눈에 호랑이 입을 한 것이 있다.

눈이 같으면 코가 다르고, 코가 같으면 입이 다르고, 입이 같으면 얼굴빛이 다르며, 모두 같으면 키와 체구가 다르고, 키와 체구가 같으면 자세가 다르다.

17)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38면.

정민, 「18세기 山水遊記의 새로운 경향」,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151면.

혹은 서고, 혹은 앉고, 혹은 숙이고, 혹은 옆의 것과 가깝고 혹은 왼쪽을 돌아 보고, 혹은 오른쪽을 돌아보고, 혹은 남과 이야기하고, 혹은 글을 보고, 혹은 글을 쓰고, 혹은 귀를 기울이고, 혹은 칼을 지고, 혹은 어깨를 기대고, 혹은 근심하는 듯 머리를 떨구고, 혹은 생각하는 듯하고, 혹은 기쁜 듯 코를 쳐들고 있으며, 혹은 선비 같고, 혹은 환관 같고, 혹은 아녀자 같고, 혹은 무사 같고, 혹은 병자 같고, 혹은 어린이에 같고, 혹은 늙은이 같아서, 천 명이 모인 모임, 만 명이 모인 저자처럼 제각각이다.

송광사의 나한전에서 본 나한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나한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옥은 수백 개의 나한의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비슷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면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반복과 열거를 통해 리듬감이 형성되면서 아울러 나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열거와 반복 속에서 오백 나한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나한은 ‘나한’이라는 말로만 표현한다면 그 명명 속에 다양한 개성이 묻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옥은 마치 나한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듯 열거해 가면서 나한 하나하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한전’이라는 공간 속에서 배열된 하나하나의 나한들이 문맥 속에서도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며 재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한의 모습을 열거한 후 그런 나한들의 모습을 통해 추상적·관념적인 특성을 뽑아내어 이치를 찾으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선비, 환관, 아녀자, 무사, 병자, 어린이, 늙은이”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열거·반복되면서 정지되어 있는 오백 나한이 저자에서 분주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생동감을 얻고 있다. 나아가 나한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이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 글은 서술 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 1) 눈은 물고기 같은 것 ~ 호랑이 입을 한 것이 있다
⇒ 나한들의 모습을 눈, 눈썹, 코, 입 등으로 나누어 묘사한 부분
- 2) 눈이 같으면 코가 다르고 ~ 키와 체구가 같으면 자세가 다르다
⇒ 같은 부분을 먼저 말한 후 다른 부분을 서술하여 차이를 강조한 부분
- 3) 혹은 서고 ~ 만 명이 모인 저자처럼 제각각이다
⇒ 인간의 동작과 다양한 인간 군상에 비유한 부분

얼핏 보기에는 오백 나한의 모습이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열거·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것’, ‘다르다’, ‘~같고’로 서술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평면적이고 부분적인 1)의 묘사는 2)의 서술을 통해 차이가 다시 한 번 강화되고 3)부분에 이르러서는 정지되어 있는 나한상들이 움직임을 부여 받으면서 역동성과 활기, 생명을 획득하게 된다.

다음은 「市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열거와 반복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아래는 「市記」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 소 두 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 닭을 안고 오는 사람, 문어를 들고 오는 사람, 뗏목에 네 다리를 묶어 짚어지고 오는 사람, 청어(靑魚)를 묶어 들고 오는 사람, 청어를 엮어 주렁주렁 드리운 채 오는 사람, 북어(北魚)를 안고 오는 사람, 대구(大口)를 가지고 오는 사람, 북어를 안고 대구나 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 앞담배를 끼고 오는 사람, 미역을 끌고 오는 사람, 싯과 땀나무를 매고 오는 사람, ……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 갔다가 또 다시 바빠 돌아오는 사람,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 소매가 좁고 짧으며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 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 승포(僧袍)와 승笠(僧笠)을 한 중, 패랭이를 쓴 사람 등이 보인다.

이 작품은 이옥이 봉성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창이 구멍을 통해 관찰한 시장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옥은 ‘나무짐을 짚어진 사람이 종이 창 밖에서 자신을 향한 채 쉬고 있어서 자신도 책상에 기대어 쉰다’고 하면서 관찰을 멈춘다. 이

작품은 이옥 자신이 관찰한 시장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데에 그쳐 그의 「市儉」나 「市奸記」처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주제 의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시장 속의 사람들에 대해 단순하다는 느낌 이들 정도로 ‘사람’을 반복하면서 열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풍경이 입체적이거나 극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평면적인 열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열거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소, 닭, 문어 청어, 미역, 꽃감, 목면 포, 강정과 떡 등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갔다 오고, 왔다 가고, 바삐 돌아오는 움직임이 시장의 활기를 느끼게 해 준다. 종이 창에 난 작은 구멍에 눈을 대고 밖을 바라보는 것은 얼핏 능동적이지 못한 소극적 자세¹⁸⁾로 대상을 관찰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작은 구멍을 통해 시장을 관찰하는 이옥의 모습은 현미경을 통해 대상의 부분 부분을 세밀히 관찰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시장이라는 공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군집성’을 들 수 있다. 군중 속에서 자칫 묻혀 버릴 수 있는 개인 개인의 색깔을 찾아내어 구별해 주는 것이 이 작품에서 많은 반복과 열거가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다음은 「重興遊記」의 總論이다. 이 작품에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며 이옥 자신이 구경하고 온 장소와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열거되고 있다.

-전략- 자동(紫峯)을 지나니 경치가 아름답고, 세검정(洗劍亭)에 오르니 아름답고, 승가사(僧伽寺)의 문루(門樓)에 오르니 아름답고, 문수사(文殊寺)의 문에 오르니 아름답고, 대성문(大成門)에 임하니 아름답고, 중흥사(重興寺) 동구(峒口)에 들어가니 아름답고, 용암봉(龍岩峰)에 오르니 아름답고, …… 동성(東城) 바깥 모래밭에서 여러 마리 내달리는 말을 보니 아름답고, 삼 일 만에 다시 도성에 들어와 취렴(翠帘), 방사(坊肆), 홍진(紅塵), 거마(車馬)를 보게 되니 더욱 아름다웠다.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답고, 날씨가 맑은

18)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18면.

것도 아름답고 날씨가 흐린 것도 아름다웠다. -중략 아름다운 안주가 없어도 탁주가 또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도 초가(樵歌)가 또한 아름다웠다. -중략 고요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적막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이자(李子)는 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서술적 특징은, 아름답다는 말이 고정된 틀처럼 사용되고 아름답다는 말 앞에 자신이 들렀던 장소와 자신의 일상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교체되어 배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寺觀」이나 「市記」에서 볼 수 있었던 반복과 나열의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느낌을 형성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동, 세검정, 승가사, 문수사에 서부터 손가장까지, 정릉 동구에서부터 자신의 일상생활의 무대인 도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를 하나하나 집어내고 아름답다는 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그 개별성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아름답다'는 말의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용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자동(紫峯)을 지나니 경치가 아름답고 ~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도 초가(樵歌)가 또한 아름다웠다.
⇒ 주변의 아름다운 대상들의 열거
- 2) 요컨대 그윽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 주변 대상들이 아름다운 이유
- 3) 이자(李子)는 말한다. ~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감동

1)에서는 이옥 자신이 유람하면서 본 아름다운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유람 장소인 자동, 세검정, 승가사 등부터 일상 생활이 영위되는 도성 안의 여러 풍경이 열거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전개는 일상과 떨어진 먼 곳의 풍경에 닿아있던 시선을 점점 생활 주변으로 옮기게 해 준다. 아름다운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정서를 환기하기 위해 떠난 유람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2)에서 ‘그윽하여, 밝아서, 탁 트여서, 높아서, 담담(淡淡)하여, 번다하여, 고요하여, 적막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이옥의 말은 자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이옥의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3)에서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이옥 본인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의 감동은 유가적인 깨달음이나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작고 일상적인 것의 아름다움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옥이 열거와 반복의 서술 기법을 즐겨 사용한 것은 대상을 평면적이고 단조롭게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대상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표현 대상의 범위나 층위에 미묘하게 변화를 주면서 서술 상의 단조로움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쇄와 분절

이옥의 소품문 중에는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 중 독특한 서술 기법으로 말을 연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연쇄와 분절이라는 말이 모순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연쇄적인 서술 때문에 오히려 그 개별 부분이 부각되는 효과를 보인다. 다음은 「南程十篇」 중의 하나인 ‘棉叻’이라는 작품이다.

종자에게 물었다. “너는 목화가 면포가 되는 과정을 아느냐?” “목화에 이미 꽃이 피면 내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이때 그 꽃을 따니다. 부피를 얇게 줄여 지붕에 올라가 이때 햇볕에 말립니다. 꼼꼼하게 뒤척거리어 이때 나쁜 것을 골라냅니다. -중략- 말뚝을 뜰에 세우고 풀을 먹여 이때 화기(火氣)에 쪼입니다. 바디구멍에 실을 꿰는데 새의 수에 따라 실을 덧보태서 이때 배틀을 장치합니다. 노는 북 [梭-사] 이 왔다갔다하며 이때 면포를 짚니다. 무릇 열두 번의 수공을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역시 어렵구나! 목화는 어떻게 꽃이 피는가?” 종자가 말했다. “땅에 씨앗을 묻으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에서 모가 되고 모에서 더 자라나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줄기가 생기며, 줄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생깁니다. 잎사귀가 자란 후에 씨방이 생기고, 씨방이 생긴 후에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봉오리가 생긴 후에 꽃봉오리가 터지고, 터진 후에 꽃이 쫓니다. 무릇 아홉 번 변하여 꽃이 쫓니다.” “면포가 이미 이루어지면 어떻게 옷이 만들어지느냐?” “면포가 이미 만들어지면 이것을 ‘무명(無名)’이라 합니다. -중략- 실로 갈무리하고, 인두질하여 가지런히 정리하고, 물을 뺐어 촉촉하게 하고, 다림질하여 울을 끈게 합니다. 또한 열두 번의 공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작품에서 이옥은 목화가 면포가 되는 과정, 목화꽃이 피는 과정, 면포가 옷이 되는 과정을 종자와의 문답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종자와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문답의 형식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목화의 씨앗을 땅에 묻는 첫 단계부터 옷이 완성되는 최종의 단계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술한 방식이다. 우선 목화가 면포가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종자의 말을 살펴보면 12번의 수공 과정을 모두 11번의 ‘이때(于時)’라는 말을 사용해서 개별 과정의 구별을 강화하고 있다. 목화가 연포가 되는 과정은 ‘이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쇄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이때’라는 말 때문에 분절되는 것이다.

목화꽃이 피는 과정에 대해 답하는 부분은 면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부분보다 연쇄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땅에 씨앗을 묻으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에서 모가 되고 모에서 더 자라나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줄기가 생기며, 줄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생깁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 ‘씨앗, 싹, 모, 줄기, 가지’라는 단어가 끝말잇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말놀이의 성격을 보이며 이런 성격을 보이는 것은 이옥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自遣의 글쓰기의 한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¹⁹⁾ 이 부분이 말놀이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런 말놀이를 차용한 이러한 서술 방식 속에서 씨앗이나 싹, 모, 줄기 등의 개별 부분이 분별되어 드러나게 된다. 목화꽃이 피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藏核于土，自核而芽，自芽而苗，自苗而莖，下根上幹，自幹而枝，自枝而葉，葉而後房，房而後蓓，蓓而後坼，坼而後花²⁰⁾

씨앗(核), 싹(芽), 모(苗), 줄기(幹), 가지(枝), 잎사귀(葉), 씨방(房), 꽃봉오리(蓓), 터짐(坼)이라는 글자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씩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과정 속에 씨앗, 싹, 모, 줄기, 가지, 잎사귀, 씨방,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터지는 순간이 개별적인 대상으로 분절된다. 이런 서술 기법은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개별 요소들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善畊奴記」의 일부분이다.

-前略- 모에 이삭이 맺히자 이삭이 모두 그물 눈속에서 나왔다. 이삭이 패어 덩수룩하게 자라고, 덩수룩하게 자라나 모나게 되고, 모나게 된 것이 윤기가 나고, 윤기 나는 것이 형태가 잡히고 형태를 이룬 것이 여물고, 여물 것이 단단해져서, 그물 위로 높이 석 자나 나온 것이 모두 벼였다.

“이삭이 패어 덩수룩하게 자라고, 덩수룩하게 자라나 모나게 되고, 모나게

19)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39면.

20) 『역주 이옥전집3』,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 95면.

된 것이 윤기가 나고, 윤기 나는 것이 형태가 잡히고 형태를 이룬 것이 여물고, 여문 것이 단단해져서, 그물 위로 높이 석 자나 나온 것이 모두 뼈라는 부분에서도 「棉功」에서와 같은 연쇄적인 서술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쇄와 분절의 서술 기법은 상황이나 사건을 개별 단계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 대화체의 활용과 방언의 수용

이옥 소품문 중에는 대화체를 사용한 작품들이 아주 많다. 대화체는 일반적으로 소설 양식에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서술하는 논설류나 서발류에는 대화체 형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²¹⁾ 그러나 이옥은 양식과 상관없이 대화체를 많이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대화체를 활발하게 사용한 작품이 양적으로 많은데 다음은 그 중 하나인 「烟經」이라는 작품이다.

행문(幸文) 사미(沙彌)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며 객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우리 부처님 여래께서 연화대(蓮花臺)에 앉아 온 세계를 두루 임하시는데, 방안은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이 방에서 일절 연기가 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객은 이때 크게 웃으며 행문에게 말하였다. “…… 어찌 석가세존여래께서 찾아온 한 객을 대접하면서 객인 나에게 담배 한 모금 피울 것을 권하지 않으시겠는가?”

…… 객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행문에게 말하였다. “…… 너는 담배 연기가 너의 향 연기에 대해서 서로 인연이 있다고 하겠는가, 서로 인연이 없다고 하겠는가?”

행문은 합장하며 객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앞의 연기는 앞의 연기이고

21) 이현우, 「이옥 소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192면.

뒤의 연기는 뒤의 연기이니, 뒤의 연기와 앞의 연기가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객은 말했다. “너의 말이 옳다. …… 앞의 연기가 향 연기이고 뒤의 연기가 담배 연기이든, 앞의 연기가 담배 연기이고 뒤의 연기가 향 연기이든, 향 연기와 담배 연기는 각기 그 연기가 그 연기일 뿐이니, 어찌 반드시 뒤의 연기가 앞의 연기의 복을 아껴주겠는가?”²²⁾ 『烟經』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서술할 때,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대신 대화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생생한 현장감이다. 나아가 인물들의 대화를 읽는 독자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생각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의 개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옥은 記, 論, 說, 解, 辨 등의 다양한 양식에 대화체 서술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관찰하고 개별성과 개성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던 이옥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옥은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으며 순전히 자신이 유배 생활을 했던 영남 지방의 방언을 소개하기 위한 글 두 편²³⁾도 남기고 있다. 그리고 한 집단이 사용하는 은어를 작품에 수용하기도 했다. 다음은 「乘轎賊」이라는 작품이다.

대구의 군교가 금천역에서 가마 하나를 만난 적이 있었다. 가마는 매우 화려했고, 따르는 노비들도 모두 건장했으며 뒤에 모시고 가는 사람도 매우 수려해 마치 유한 공자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녹림의 낚새가 있었다. 그는 곧 뒤를 밟아 청도읍에 이르렀는데, 도착한 날은 마침 장날이었다. 그들은 여관에 가마를 머물게 하고 흩어져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남의 비단과 돈과 재물을 훔쳐온 것이 매우 많았다. 군교가 마침내 발로 차고 손을 묶어 심하게 매질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가마에 있던 부인이 급히 나와 풀어주기를 청하면서 말했다. “나그네께서는 우리 장사꾼을 다그치지 마세요. 내가 떡을

22) 위의 책, 260~263면에서 발췌.

23) 『봉성문어』에 「방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편 더 실려 있다.(『역주 이옥전집2』, 69면)

드릴게요.” 그 부인의 자태는 질세미인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취하고 손에 맥이 풀리게 하였다. 대개 떡이라는 것은 도적들의 은어로 간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 작품은 한 군교가 가마를 탄 여인과 도적 집단의 뒤를 밟고 그들을 검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마를 모시고 간 사람들을 매질하고 꾸짖자 가마에 있던 부인이 나와 군교에게 ‘떡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작품에서 ‘떡’이란 ‘간음’을 뜻하는 도적들의 은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손에 맥이 풀리게’ 할 정도의 미모를 갖춘 여인과 도둑들의 조합이라는 설정과 미모를 이용해 그들을 검거하려는 군교의 도덕성을 혼드는 내용이 흥미롭다. 또한 이 작품은 시장이 활성화 되고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가 증가했던 시대적 변화의 이면에 횡행하는 도적들과 정절을 중시했던 당시에 ‘상’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한 인물들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옥은 대화체를 활용하고 그 안에 도적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있다.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고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글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옥은 은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떡을 주겠다’는 은어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현장감이 더욱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감을 통해 내용의 흥미와 세태 풍자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다음은 「南程十篇」 중 하나인 「方言」이라는 작품과 『俚諺』 중 「三難」이라는 작품이다.

초(楚)에서는 초나라 말을 하고, 제(齊)에서는 제나라 말을 하고, 추로(鄒魯)에서는 추로의 말을 하고, 진(秦)에서는 주(周)나라 말을 하고, 오(吳)에서는 오나라 말을 하는데, 혹은 수다스럽고, 혹은 찻찻거리고, 혹은 머뭇머뭇하고, 혹은 깔깔거리다. …中略… 지방의 말을 들으매, 첫날엔 뭐가 뭔지 분변할 수 없다가, 둘째 날엔 반 정도 알아듣고, 셋째 날엔 듣는 대로 통한다. …中略… 어머니를 ‘어매(於邁)’, 할아버지를 ‘할배(豁輩)’, 여자를 ‘가산(嘉散)’, 지

팡이를 ‘작지(斫枝)’, 둥구미를 ‘거치(學致)’, 새끼줄을 ‘삭락긴(朔落緊)’, 버를 ‘나락(羅樂)’, 말을 ‘몰(沒)’, 닭의 새끼를 ‘빈아리(貧兒利)’, 산을 ‘昧), 돌을 ‘돌기(突其)’, 외양간을 ‘구의(求義)’, 부역을 ‘정자(精子)’라고 한다. …… 나는 모르겠다, 호서인이 영남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영남인이 호서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또 어찌 알겠는가, 호서인과 영남인이 우리의 말을 두고 웃지 않을지.²⁴⁾

우리가 ‘붓’이라 하고 ‘종이’라 한 것도 또한 닳나무와 털의 적친(嫡親) 부모가 손수 만든 그 당시에 바로 명명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그 본래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이 그 본래의 이름이 아님은 동일한 것이다. 저들은 마땅히 저들의 이름하는 바로 이름하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름하는 바로 이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반드시 우리의 이름하는 것을 버리고, 저들이 이름하는 것을 따라야 하겠는가? 저들은 어찌하여 그 이름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이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俚諺』 중 「三難」²⁵⁾

「方言」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호서인과 영남인, 서울 사람의 말이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특정 언어를 우위에 두고 있지 않다. 「三難」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이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꼭 중국의 말을 따라할 필요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인용된 「三難」의 뒷 부분에는 중국의 말과 우리 말이 달라서 생활에서 불편을 겪은 일화를 두 개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한 일화는 한 아전이 法油를 사오라는 원님의 영을 받고 기름 가게에 갔는데, 기름 파는 남자가 ‘우리에게는 참기름과 등잔기름 두 가지 기름만 있을 뿐이다. 본래부터 범유라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아전은 범유가 등잔기름인 것을 끝내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이옥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원님의 잘못이지 아전과 기름 파는 남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평가를 덧붙인다. 중국인이 중국의 물건을 이야기할 때는 중국의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4) 위의 책, 263-265면.

25) 『역주 이옥전집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소명출판, 2001, 301-302면.

특히 우리나라의 말을 중국의 말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이옥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위의 글들에서 이옥은 각각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한 그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은 중국의 것을 전범으로 삼으려는 고문론에 대한 이옥의 비판적 입장과 연결된다.

4.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의 의미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고문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명칭 문집의 閱讀이 이옥이 소품문을 창작했던 배경이 되었다는 것과 열거와 반복, 연쇄와 분절, 대화체의 활용과 방언의 수용이 이옥의 소품문에 나타난 서술적 특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옥 소품문의 이러한 서술적 특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옥 소품문의 서술 기법은 一理적 사고를 해체하고 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옥은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개성을 찾아내는 일을 즐겼던 인물로 보인다. 이옥의 소품문에서 열거와 반복의 서술 기법이나 연쇄와 분절의 서술 기법은 모두 각각의 요소를 하나의 전체로 아우르기보다는 전체에서 개별적 요소로 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성이, 꽃의 차이가, 나한의 다양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옥이 반복을 거듭하고 열거를 계속하고, 연쇄적인 말놀이를 한 것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서술 기법은 전체주의적이고 一理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개별 사물에서 아름다움과 이치를 찾으려는 이옥의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俚諺』 중 「一難」의 일부이다.

천지만물(天地萬物)은 천지만물의 성(性)이 있고, 천지만물의 상(象)이 있고, 천지만물의 색(色)이 있고, 천지만물의 성(聲)이 있다. 총괄하여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고, 나누어 말하면 천지만물은 각각의 천지만물이다. 바람 부는 숲에 떨어진 꽃은 비 오는 모양처럼 어지럽게 흐트러져 쌓여 있는데, 이를 변별하여 살펴보면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 그리고 군천광악(鈞天廣樂)이 우레처럼 웅장하게 울리지만 자세히 들어 보면 현악(絃樂)은 현악이고 관악(管樂)은 관악이다. 각각 자기의 색을 그 색으로 하고 각각 자기의 음을 그 음으로 한다. …… 대체로 논하여 보건대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거니와,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다. 마치 천만 사람이 각자 천만 가지의 생명을 가졌고, 삼백 일에는 또한 스스로 삼백 가지의 하늘이 있음과 같다. 오직 그와 같을 뿐이다.²⁶⁾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옥의 사유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옥은 어떤 공간도 동일한 공간이 아니고, 모든 시대는 동일한 시대가 아니라 각각의 시대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성리학의 절대론적인 一理적 세계관과는 다른 이옥의 사유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의 물건이 만 가지 물건이고 천만의 사람이 천만 가지의 생명을 가졌으니 천만 가지의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켜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은 소품문 그 자체가 아니라 소품문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유 방식이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이옥은 삶의 다채로움과 개성을 중시하면서 끊임없이 소품문을 창작했던 것이다.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언어의 경직성을 해체하고 현장감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道本文末’이라는 이념편향적인 載道之文論과 전범 설정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古文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언어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주자학적 道를 나타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 언어는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전범의 설정으로 표현상의

26) 『역주 이옥전집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 289-294면.

제약이 뒤따랐다. 載道之文이 될 수 없는 소품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정조의 정책적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옥은 자신의 작품을 소품체로 썼을 뿐만 아니라 방언까지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이러한 방언의 수용은 경직된 언어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열거나 반복, 연쇄와 분절의 서술 기법과 대화체의 활발한 활용으로 쓰여진 작품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개별 요소의 특징을 드러내거나 현장감을 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지 道를 향해 수렴되고 있지 않다. 그런 과정 속에 쓰인 언어는 道를 위한 도구적인 언어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 그 자체의 생명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채로운 언어 표현을 통한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조선후기의 소품문이 명칭 소품문의 영향을 받았고 이옥도 명칭의 문집을 闕讀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옥의 개별 작품과 명칭 문인들의 소품문이 지닌 내적 구성과 문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옥 소품문을 그의 생애와 연관지어 분석했던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옥의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옥은 고문론(古文論)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명칭(明清)의 문집을 열독(闕讀)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이 그가 소품문을 창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옥 소품문의 서술적 특성은 열거와 반복, 연쇄와 분절, 대화체의 활용과 방언의 수용이다. 이러한 서술적 특성의 의미는 첫째, 일리(一理)적 사고를 해체하고 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옥은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개성을 찾아내는 일을 즐겼던 인물로 보인다. 둘째 언

어의 경직성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도본문말(道本文末)’이라는 이념편향적인 채도지문론(載道之文論)과 진범(典範) 설정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고문(古文)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언어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이옥은 자신의 작품을 소품체로 썼을 뿐만 아니라 방언까지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이러한 방언의 수용은 경직된 언어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열거나 반복, 연쇄와 분절의 서술 기법과 대화체의 활발한 활용으로 쓰여진 작품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개별 요소의 특징을 드러내거나 현장감을 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지 도(道)를 향해 수렴되고 있지 않다. 그런 과정 속에 쓰인 언어는 도(道)를 위한 도구적인 언어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 그 자체의 생명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채로운 언어 표현을 통한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주제어: 이옥, 소품체, 소품문, 문체 반정, 고문론, 명칭 문집, 개성, 열거, 연쇄

<참고문헌>

- 『역주 이옥전집』 1-3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태학사, 2001.
-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 _____,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8.
- 권순궁, 「李鈺 傳의 시정세대 묘사와 諷刺」, 『한문교육연구』, No.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김군태, 「이옥의 한시론고」, 『先淸語文』, Vol.9 No.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78.
- 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김영진, 「이옥(李鈺) 문학과 명칭 소품 - 신자료의 소개를 곁하여 -, 『古典文學研究』, Vol.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류재일, 「〈俚諺〉에 반영된 李鈺의 시이론 연구(〈俚諺〉 작품과의 상응 관계를 중심으로)」, 『人文科學論集』, Vol.16,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 - 한문 단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4.
- 박성훈, 「이옥(李鈺)의 「전」에 나타난 풍자연구」, 『漢文學論集』, Vol.2, 근역한문학회, 1984.
- 박완식, 『한문 문체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2.
- 박인숙, 「박지원과 이옥의 전에 나타난 열녀상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2007.
-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 소인호, 「李鈺 傳의 특성과 작가의식의 구현 양상」, 『崇實語文』, Vol.16, 崇實語文學會, 2000.
- 손병국, 「이옥이 注目한 晚淸初文人들」, 『한국어문학연구』, Vol.53, 한국어

문학연구학회, 2009.

심경호,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십시오』, 태학사, 2001.

_____,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안대회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안대회, 『고전 산문 산책』, 휴머니스트, 2008.

이종주, 『연꽃 속에 잠들다』, 태학사, 2005.

이지양, 「이옥(李錕)과 풍몽룡(馮夢龍)의 산문에서 통속성(通俗性)과 진정(眞情)의 관계 -여성의 열절(烈節)을 소재로 한 전(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16, 한국실학학회, 2008.

이현우, 「이옥 소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임유경, 「이옥의 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0.

임정현, 「李錕 傳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훈, 「이옥 부(賦)의 기법적 특성과 주제구현양상」, 『韓國思想과 文化』, Vol.2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홍용희, 「李錕의 「傳」과 「沈生傳」考」, 『성심어문논집』, Vol.11, 성심어문학회,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Lee Ok's Short Essays

Kim, Seon-a

This thesis takes a look at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Lee Ok's short essays based on existing research that analyzes them in relation to his life and their meaning. Munmuja Lee Ok(1760~1815) was someone who was cast out of main society and marginalized his whole life because he wrote short essays. King Jeongjo's 'Munchepanjung' prevented Lee Ok from advancing in his career and he was pushed out from the center of the system because he wrote short essays in 'Eungjaemun', which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Lee Ok's literature to this day.

Lee Ok was critical of 'Gomunron' and records show that he read the literary works of Ming-Qing with fervour, which became the basis upon which he created short essay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Lee Ok's short essays are enumeration and repetition, series and segments, the use of speech and accommodation of dialects. The significance of such characteristics are; First, breakup of 'Illi' style thinking and emphasis on personality. Lee Ok appears to have enjoyed discovering the personalities of each individual element through delicate and meticulous observation. Second, it signifies the disintegration of the rigidity of languag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Gomun movement' based on the biased ideology of 'Jaedojimunron' and 'Jeonbeom', known as 'Dobonmunmal', being the subject of controversy,

language could only be rigid. Despite the fact that Jeongio was critical of short essays as they could not be 'Jaedojimun', and regulated them with policy, Lee Ok not only wrote his works in sopum style but also boldly used dialects to free the rigid use of language. Furthermore, the use of enumeration or repetition, series and segments in narrative methods and the active use of speech contribute to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lements and provide a sense of being on the scene rather than converging with 'Tao'. The language used in the process is not simply one that serves as a tool for 'Tao' but one that has a life of its own as linguistic expression, making it possible to appreciate literary beauty through the use of colorful language expressions.

【Key words】 : Lee Ok, sopum style, short essays, Munchebanjeong, theory of classical written style, Ming-Qing munjip, personality, enumerate, chain

김선아

전주대학교 강사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toujours11@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